

우리의 **국외 사역**

큰빛은교회 

최정선 목사(한국)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필리핀)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복 목사 (일본)



کمپ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BRIANA
GENESIS
JOSUE
LUIS

과테말라 

ESTEFANI
NANCY
ROBERTO
YEFERSON

온두라스 

CAMILA
JENNSY
LIA
ORIANA

니카라과 

EMELY
GAEL
OSCAR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콜롬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교육관



Worship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Enjoy

구원의 확신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Increase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육체의 성장과 생각의
깊이와 영적 성숙이 점점 확장되는 교회



Global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세계 선교로 마치는 교회



Harvest

나에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 나눠주고 꾸어주며
배풀어주는 교회



Training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되고 재생산되어
파송하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기도 처소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뉘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임목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역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김용현 전도사
Samuel Kim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같이
Together

대표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김예원 성도
Yaewon Kim

말씀
Sermon

사랑의 빛을 갠 방법
로마서 10장 13~15절

담임 목사
Senior Pastor

합심 기도
United Prayer

다같이
Together

봉헌 및 찬양
Offering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같이
Together

광고
Announcements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찬양
Blessing Song

삼중 축복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기도 순서

1/25	2/1	2/8	2/15	2/22
김예원	장승현	우빛나래	김찬양	김대환

1. 성전 대청소 안내

식탁 교체 후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일 예배 안내

당분간 예배는 2부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3. 남성교구 주관 천하제일 볼링대회

일시: 2월 1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Homestead Bowl
(20990 Homestead Rd, Cupertino, CA, 95014)

4. 남성교구 주관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일시: 2월 2일 (월) ~ 6일 (금) 오전 6시
장소: 교육관 / YouTube Live

5. 연간 헌금 내역 신청

세금 보고를 위한 연간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보라 전도사

6. 가정 예배지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1월 생일

6일 김종길 집사
12일 김예원 성도
26일 김찬양 성도
31일 김지훈 집사
31일 이이레 학생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고린도후서 9:6-15	고린도후서 10:1-11	고린도후서 10:12-18	고린도후서 11:1-15	고린도후서 11:16-33
Grace Kim	Sam Kim	이종록	임성호	Grace Kim

인간과 AI의 공존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AX)'의 시대입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코드까지 짜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그 거울에 비친 인간의 가치는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AI와 인간의 공존을 상징하는 세 가지 풍경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짚어봅니다.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 효율 너머의 '책임'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답을 내놓지만, 그 답이 '옳은가'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알고리즘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과 윤리적 판단의 고리(Loop) 안에는 반드시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한 검수가 아닙니다. 기술의 편리함에 매몰되어 '생각하는 근육'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의지의 발현입니다.

<켄타우로스형 인재> 도구와의 '능동적 결합'

과거에는 AI를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침입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우리가 올라타야 할 영리한 '말(Horse)'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상체는 인간, 하체는 말인 '켄타우로스'처럼, 자신의 전문성이라는 상체에 AI라는 강력한 하체를 결합한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체스 게임에서 인간과 AI가 한 팀이 된 '켄타우로스 팀'이 최강의 AI 단독 모델을 이겼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 그리고 AI의 압도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결합할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와 경쟁하는 능력이 아니라, AI를 얼마나 능숙하게 부리는 '기수'가 되느냐입니다.

<시뮬러브(Simulove)> 결핍이 만든 '기술적 위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아픈 지점은 '시뮬러브(Simulove)'입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관계의 결핍과 고독을 AI와의 감정적 교감으로 채우려는 현상입니다. 24시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비난하지 않는 AI 연인이나 친구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러브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상처받을 용기가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하는 점입니다. AI와의 교감은 갈등이 없고 매끄럽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인 '서로 다름에서 오는 충돌과 성장'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술로 외로움을 달랠 수는 있지만, 인간다움의 정수인 '깊은 유대'를 완전히 대체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일상의 기본값(Default)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인간만의 가치'는 결국 공감, 윤리, 그리고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AI는 우리가 더 빠르고 편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도와주지만,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생명들의 손을 잡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